

건강 칼럼

뇌혈관 질환의 '7가지 의심 증상'

급성뇌경색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혈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맥경화가 심한 혈관이나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향하는 혈관으로 흘러가다가 중간에 걸리면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다.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뇌세포는 몇분도 지나지 않아 죽게 되고,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하지만 뇌에는 아주 많은 수의 혈관이 있고 각각의 혈관이 담당하는 부위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차단된 부위의 중심에 있는 뇌세포는 죽더라도 주변부에 있는 뇌세포는 근처 혈관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동안 죽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이런 뇌세포는 막힌 혈관을 뚫어 혈액공급이 원활히 재개되면 본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때문에 급성 뇌경색 치료의 목표는 이런 상태의 뇌세포를 살려 최대한 뇌기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의 의미를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면 모든 환자가 다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치료 후 통계를 내보니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혈관 재관류에 성공한 환자들의 평균적인 치료결과가 3시간 이후에 치료 받은 환자들보다 더 좋



박 정 진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았다는 뜻이지, 3시간 이내면 다 걸과가 좋고 이후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마다 혈관의 분포와 순환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혈관의 도움으로 뇌가 견딜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입직 후송돼 30분 안에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 주었는데도 이미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죽어 있고 오히려 뇌출혈의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치료가 지연돼 몇 시간 만에 열어주었는데도 많은 뇌조직의 기능이 회복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병원 도착 시 환자의 뇌손상 정도가 치료에 중요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혈전은 단단한 동맥경화성 혈착과 달리 대개 부드러운 젤리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약으로 혈전을 녹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다가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많이 발생했다. 죽은 뇌세포가 많은 부위에 피가 다시 통하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해 그냥 두었을 때보다도 훨씬 나쁜 상황으로 악화된다. 죽은 뇌세포의 양과 범위는 막힌 시각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치료 목표와 결과가 달라진다. 혈관이 막힌 초기에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해 혈관을 다시 열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런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뇌부종이나 뇌출혈에 의해 뇌압이 증가해 뇌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위험 인자 미리 알고 대비를 뇌혈관질환에 따른 뇌손상은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미리 알고 대비해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조절할 경우 뇌혈관질환 발병에 의한 사망과 후유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뇌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TFCA) 등이 있다. CT는 대부분의 병원이 장비를 갖추고 있고 검사비가 저렴하며 촬영시간이 수분 이내여서 응급상황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감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영상이 많지 않고 해상도가 떨어져 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로는 적당하지 않다. 전산화단층혈관촬영(CTA)은 조영제를 주입해 세밀한 영상을 찍으면 목과 머리의 혈관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어 뇌동맥류나 경동맥 협착 등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MRI는 CT보다 촬영시간이 길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고화질의 뇌영상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뇌혈관질환뿐 아니라 뇌종양, 퇴행성뇌질환 등 뇌의 여러 가지 질병의 조기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CTA처럼 혈관만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MRA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평소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숨어있는 뇌혈관질환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했을 때 빨리 알아채 시간을 지체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이나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엔 비교적 빨리 병원으로 오지만, 증상이 가볍거나 애매하면 병원에 오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한다.

독자제언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하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했다. 해마다 노인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집, 경로당이나 마을 등지에서 길을 건너다가 당한 사고였다. 2008년도에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 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 지정되어 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

고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노면을 빨간색 컬러아스팔트로 포장한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고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30km/h 이내이며 특정 시간과 구간별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이다. 노인 교통사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 보호구역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모두 서행 운전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겠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꽃들과 만수대 찾은 평양 시민들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15일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헌화할 꽃을 들고 만수대를 찾고 있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금융 중심지 지정 무산에 말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됐다. 금융위가 기존 중심지의 내실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가운 소식을 기대했는데 뜻밖이다. 그래서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 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제3금융도시 지정이라고 여러 번 밝혔는데 많이 섭섭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했던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숱한 난관을 견디면서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대를 걸었는데 말이다. 수도권이 노골적으로 탄핵을 건네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정말이지 분노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저번에도 말했거니와 전북 금융은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중심이고 부산 금융은 해양과 그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저번에 전북을 찾은 최중구 금융위원장에게 송하진 도지사가 금융 발전을 부탁했지만 흔쾌한 답은 없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여건

이 성숙되면 추가 지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거니와 때문이다. 반대자들이 지금은 속으로 패자를 부르겠지만 그에 패념치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또다시 시도할 지 모르므로 단단히 대비를 하는 가운데 혁신도시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반대자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했다느니 기금운용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느니 말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다. 저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해도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저들이 접근성의 문제를 들어 전주 패성을 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저들이 계속 음해 공작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혁신도시는 제3의 금융중심지로 우뚝서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전북도는 좌절하지 말고 힘내야 한다. 앞으로 전북도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 지 기대가 크다.

일자리 대책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책 강구야말로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것 투성이다. 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라는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1/4분기 일자리 성과가 괜찮다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지적을 부인할 수 없을 터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욱 고민해야겠다. 부끄러운 기록은 빨리 깨뜨릴수록 좋다는 지적이다. 정말이지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실업수반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세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허는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전북도가 때때마다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발표된 내용에 공감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계속 추구돼야 마땅하다. 일자리가 적으면 일자리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아야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전북도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현실과 관련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쳐지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